

大覺國師 義天의 天台宗 創立과 宋의 天台宗

최 병 헌
(서울대 국사학과)

—

天台宗은 東아시아의 大乘佛敎 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파의 하나로서 中觀派 불교인 三論宗에서 발전한 것인데, 중국에서는 일찍이 6세기말경인 隋代에 智者大師 智顛(538~597)에 의해서 최초로 성립되었으며, 그것이 韓國과 日本에도 전해져서 각각 독립된 종파가 되었다. 일본의 천태종은 平安期인 9세기초에 傳敎大師 最澄(767~822)에 의해서 성립되어 일본불교의 주류적인 종파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중국에서의 천태종 성립 초기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그 뒤 계속하여 중국 천태종의 발전 단계마다 참여하여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 적이 있었음¹⁾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종파 성립은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늦어 11세기 말경인 高麗中期에 와서야 大覺國師 義天(1055~1101)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와같이 中國 韓國 日本의 천태종은 그 성립시기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국의 천태종은 성립시기에서 뿐만 아니라 그 불교

1) 중국의 천태종이 대성되기 이전인 南岳慧思의 문하에는 백제의 玄光, 그리고 천태종을 창립한 智顛의 문하에는 고구려의 波若이 있어 일찍부터 천태종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천태종의 제5조 左溪玄朗의 문하에는 신라승 法融·理應·純英 등 3인이 천태종을 진흥시켰던 荊溪湛然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고려초의 義通과 諦觀이 吳越에서의 천태종을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상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에서도 크게 다른 점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천태종은 南北朝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隋代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華北지방에서 유행되던 實踐의인 불교와 南方에서 성행되던 學問佛敎를 통합하여 綜合佛敎를 성립시킨다는 사상사적 과제를 가지고 성립되었기 때문에²⁾ 學問과 實踐, 즉 敎門과 觀門 二門의 調和를 그 大義로 하였다.³⁾ 그 결과 중국의 천태종은 방대한 敎學的 體系를 가졌으면서 동시에 그의 實踐門인 止觀은 敎宗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여 실천적 불교인 禪宗의 수행방법인 禪定이나 定慧와 비교되었다.

한편 일본의 천태종은 奈良의 南都六宗의 불교 모순, 특히 三論宗과 法相宗의 대립을 지양하려는 사상사적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것이며, 南都의 舊佛敎와 대립하여 천태종의 독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히 南都佛敎의 諸宗 가운데도 가장 치밀한 논리성을 가진 法相宗과의 全面的인 對決을 피할 수 없었다. 법상종에 대한 사상적 독립을 고하는 교리논쟁이 三一權實論爭이라고 하는데, 그 논쟁의 주제는 천태의 一乘主義와 법상의 三乘主義와의 우열론, 그리고 천태의 一切皆成說과 법상의 五姓(性)各別說과의 대립 등의 문제였다. 또한 南都舊宗으로부터 敎團의인 독립을 이루려는 싸움은 大乘戒 獨立運動으로 전개되었는데, 818년 比叡山으로 돌아온 最澄은 자신이 일찍이 19

2) 천태종 개창의 가장 유력한 外護者는 晉王廣(뒷날의 隋煬帝)이었는데, 統一國家의 建設者와 綜合的인 中國佛敎의 形成者의 만남은 歷史的 必然이라고 할 수 있다.

3) 智顓은 560년, 23세 때에 河南省의 大蘇山에 들어가 慧思로부터 一心三觀의 心要를 받아 얻음으로써 천태종 개창의 단서를 열게 되었는데, 그는 大蘇山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미 南地의 불교학의 성과를 흡수하여 法華最勝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며, 이제 北地의 실천불교의 체득자인 慧思에 의하여 그 확신에 힘을 실은 종교적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다. 그는 뒷날 575년 천태산 華頂峰에 은거하여 수행중 깨달음을 체험하고, 585년 金陵에 나와 『法華文句』를 강의하고 이어 589년 荊州에 옮겨 玉泉寺를 건립하고 『法華玄義』와 『摩訶止觀』을 개강함으로써 천태종 개창의 기초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智顓의 많은 저술 가운데 『法華經』을 중심으로 하는 이 3종의 저술을 이른바 '天台三大部'라고 하여 천태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데, 이 가운데 『法華文句』는 그 註釋, 『法華玄義』는 그 原論, 그리고 『摩訶止觀』은 그것에 기초한 實踐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때 東大寺의 戒壇院에서 받았던 小乘 250계의 棄捨를 선언하고, 새로 『梵網經』에 의거한 大乘戒壇 건립의 결의를 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신라 불교사에서는 삼론종과 법상종의 대립과 법상종의 삼승교학 문제, 그리고 『梵網經』에 의거한 대승계의 문제 등이 이미 7세기 후반 元曉(617~686)에 의하여 해결을 보았던 것인데, 일본에서는 9세기초에 들어와 천태종의 창립과정에서 비로소 문제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천태종의 특색을 결정하여 주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密敎와의 관계였다. 最澄은 天台敎學만이 아니라 密敎祈禱에도 관심을 가져 804년 唐에 갔을 때 천태산에서 천태종의 제6조 荊溪湛然의 제자인 道邃와 行滿으로부터 天台觀門을 전수받는데 그치지 않고 國淸사의 惟象으로부터 밀교를 배웠으며, 이어 越州에 가서 密敎의 善無畏의 法孫 順曉에게 灌頂을 받고 다수의 밀교경전을 전수하여 귀국하였다. 그리하여 天台와 함께 密敎를 함께 흥포한 결과 일본의 천태종은 止觀業과 遮那業, 천태와 밀교의 組合된 형태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뒤 圓仁和 圓珍 등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계속하여 唐으로부터 밀교를 받아들임으로써 比叡山의 천태교단에서의 밀교화의 현상은 가속화되어 갔다. 그 결과 법화와 밀교의 조화를 기도하면서도 교리와 실천 양면에서 밀교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천태종의 기본적인 藏·通·別·圓의 四敎判을 폐기하고 圓敎의 위에 眞言密敎를 위치시키는 五敎判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천태종의 밀교화라고 하는 현상은 平安朝의 貴族政治의 展開와 호응하면서 진행된 것인데, 순수한 밀교인 眞言宗과 양립되어 平安佛敎의 二大主流를 이루면서 대립되었다.

중국 천태종에서는 唐代 이후 화엄교학과 대립 갈등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오랜 시간을 지나 宋代 山外派의 사상으로 결실되었던 데 비하여 일본 천태종에서는 眞言密敎와의 대립 갈등을 통하여 天台密敎로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 때 성립된 한국의 천태종은 밀교적 성격을 띤 일본의 천태종과는 말할 것도 없고,⁴⁾ 중국의 천태종과도 상당히 다른 점이 있었다.

4) 신라 불교계에서도 8세기 말 9세기 초에 唐으로부터 밀교를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玄超와 義林 같은 신라 출신의 밀교 승려는 각각 最澄과 空海의 法祖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일본 밀교의 성립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성립 당시의 사상사적 과제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義天(1055~1101) 당시 고려 불교계는 교종 계통인 華嚴宗과 法相宗이 양대 주류를 이루어 대립하고 있었고, 禪宗이 제3종단의 위치를 차지하는 교단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때 화엄종 출신인 의천이 불교계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그 의도는 교리적인 면에서 법상종에 대한 화엄종의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것과 교단면에서 禪宗의 포섭을 통한 천태종을 새로 개창하는 것이었다. 그에 상응하여 의천이 내세운 불교의 핵심과제는 性相兼學과 教觀并修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教觀并修라는 사상사적 과제는 천태종의 창립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천은 그의 구체적인 노력으로써 宋僧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佛敎典籍을 수집하는 한편으로 教觀并修의 문제를 확인하고 天台宗을 새로 전수하여 왔다. 그 결과 의천에 의하여 성립된 천태종은 宋의 천태종을 받아들인 것이었으면서도 그 내용이나 성격은 상당히 다른 점이 없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천에 의한 천태종 개창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당시 불교계의 사상사적 과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아울러 宋의 천태종과의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二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일생은 11세의 나이로 화엄종의 靈通寺에서 불교에 입문한 이래 華嚴宗의 승려로서 일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년에 가까운 43세 때인 肅宗 2년(1097)에 天台宗을 새로 개창하고, 종전의 興王寺의 住持직과 함께 새로이 國淸寺의 住持직을 兼職함으로써 화엄종과 천태종

그러나 본국에서는 善無畏나 金剛智 계통의 밀교가 독립된 종파로는 성립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밀교가 주류적인 불교로 대두된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의 천태종에 대한 이해에서는 일본의 그것과 달리 밀교적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의 두 종단을 함께 장악하여 영도하였다. 그런데 의천에 의한 천태종 개창은 단시일에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천태종 개창의 뜻을 세운 것은 宋에 가기 앞선 30세 이전부터였다. 의천은 渡宋 전에 생모 仁睿太后와 鷄林公 熙(뒤의 肅宗)에게 “天台三觀은 最上眞乘인데, 이 땅에 아직 이것을 開立치 못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나는 간절히 이를 뜻합니다.” 라고 하여 천태종 개립의 뜻을 밝히고 두 사람으로부터 그 후원을 약속받은 바 있었다.⁵⁾ 그런데 화엄종 출신인 의천이 끝까지 화엄종단을 떠날 의사가 없으면서 새로 천태종을 개창하여 禪宗을 포섭하려고 할 때에 먼저 주의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불교의 實踐的인 면에서 禪宗의 禪과 天台의 止觀의 同異點, 그리고 敎學的인 면에서 華嚴과 天台의 調和 可能性 등이 아닐 수 없었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 의천은,

“옛날의 禪은 敎에 의거하여 禪을 익히는 習禪이었는데, 지금의 禪은 敎를 떠나서 禪을 說하는 說禪이 되고 말았다. 이 說禪은 그 名目에 집착하여 그 實을 잃고 있는데 반하여 習禪은 그 事理를 따짐으로 인하여 그 뜻을 얻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의 矯詐의 폐단을 구하고, 古聖의 醇精한 道로 復歸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不立文字 敎外別傳’의 達磨 계통의 선종을 부인하고 天台의 止觀으로 대체하려고 하였다.⁶⁾ 그리고 후자의 문제, 즉 華嚴

-
- 5) 林存 찬술,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朝鮮金石總覽 上, 1919, p. 330).
- 6) 遼의 道宗은 대장경을 간행할 때에 조서를 내려 義學沙門 詮曉(일명 詮明) 등으로 하여금 經錄을 재정하여 『續開元釋敎錄』 3권을 편수케 하였는데, 선종의 기본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六祖壇經』과 선종의 傳燈錄의 시초라고 할 唐 智炬의 『寶林傳』을 모두 불태워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의천은 僞妄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여 은근히 공감을 표시하고, 福唐의 飛山默子 戒珠가 선종에서 내세우고 있던 敎外別傳의 心法을 척파하기 위하여 찬술한 『別傳心法議』라는 책을 얻어 자신이 편찬한 『圓宗文類』 권21에 수록하면서 붙인 발문에서 戒珠의 辯論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하였다. (大日本續藏經 제1집 제2편 제6투 제2책 소재 『別傳心法議』 참조) 한편 南宋代 志磐이 咸淳 연간(1265~1274)에 편찬한 『佛祖統紀』 권14, 僧統義天條에서도 의천이 『別傳心法議』에 부친 跋文을 전재하여 주고 있다.

과 天台의 調和 문제에 대해서는 宋에 가서 華嚴宗 승려들에게 질의하여 해답을 구하였다. 즉 의천은 卞京에서 宋의 조정에서 의천의 상대자로서 친거한 有誠을 만나자 “賢首와 天台의 教判의 同異點 및 두 종의 미묘하고 그윽한 뜻”에 대한 문답을 하였으나,⁷⁾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어 杭州의 淨源을 찾아가 한해 겨울을 나면서 華嚴教觀에 대한 강의를 듣는 가운데, 教觀并修說을 확신하게 됨과 아울러 화엄과 천대의 조화 가능성을 澄觀의 “화엄의 五教와 천대의 (化法)四教는 大同하다.”는 말을 통하여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淨源은 의천이 가져간 화엄전적을 통하여 중국 화엄을 부흥시킨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그는 말년에 『法華經』을 주석하였으며, 의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華嚴經』과 『法華經』 두 경은 불교의 表裏요, 始終의 絕唱이다.” 이라고 하여 화엄학과 함께 천태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의천은 淨源을 통하여 화엄과 천대의 조화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天竺寺의 從諫를 찾아가서 天台教觀을 전수받고, 이어 귀국길에 올라 天台山の 國淸寺를 찾아 智者大師塔 앞에서 發願文을 지어 “錢塘의 慈辯大師에게 教觀을 전수받았는 바, 귀국하여 천태종을 개창하겠다.”라고 誓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화엄종의 입장에서 천태종을 받아들여려고 하였던 의천이 宋의 천태종을 전수하여 음에 있어서 宋의 天台宗의 學派 가운데 화엄화된 山外派가 아닌 순수한 천태의 입장을 지키려는 山家派의 從諫으로부터 天台教觀을 받아오고 있었던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천태종은 六祖 湛然(711~782) 이후 華嚴化되어 갔는데,⁸⁾ 宋 초기에 四明知禮(960~1028)와 慈雲遵式이 출현하여⁹⁾ 천태종의

7) 林存 찬술,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之碑銘」 p. 331 참조.

8) 智顛의 6세 법손인 荊溪湛然是 17세 때 출가한 이후 천태종을 비롯하여 律·華嚴 등의 제종의 교학을 널리 공부하였으며, 말년에는 천태산에 들어가 천태학의 연구와 교단의 경영에 주력하여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천태종의 중세를 떨치게 함으로써 唐代 들어와 法相宗과 華嚴宗의 융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천태종을 부흥시킨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의 대표작인 「天台三大部」의 주석(『法華文句記』 『法華玄義釋籤』 『摩訶止觀輔行傳弘決』 각 10권)은 단순한 師說의 조술이 아

正體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湛然 이후의 천대종이 화엄이나 선의 사상을 흡수하여 본래의 특색을 상실하게 된 것을 개탄하고, 原始天台인 智顓 教學에로의 복귀운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는 孤山智圓이나 梵天慶昭와의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知禮 등은 자기의 입장을 正統으로 내세워 山家派라 칭하고, 華嚴화된 天台學者를 山外派라고 하여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知禮 이후 宋의 천대종에서는 華嚴教義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山家 山外로 나뉘어 論難 抗爭을 벌이게 되었다. 그 논쟁의 주제는 天台智顓의 『金光明經玄義』의 廣略二本의 문제, 『法華經』의 別理隨緣 不隨緣의 문제, 『請觀音經』 所說의 理性毒害의 문제, 『觀經疏妙宗鈔』 所說의 色心双具說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전개되었는데, 그 요점은 화엄의 唯心論과 천대의 實相論의 對立, 또는 화엄의 性起說과 천대의 性具說의 抗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엄종의 입장에서 새로이 천대종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의천으로서 는 화엄종 教義를 받아들여 唯心論을 내세우고 있던 山外派의 주장에 공감할

-
- 니고, 法相·華嚴·禪宗 등의 여러 종파와의 사상적 대결 극복을 통하여 천대종의 宗義를 발양하려고 한 것이다. 제종 가운데도 화엄종과의 관계가 가장 주목되는데, 그는 화엄의 사상을 흡수하여 천대교학을 해석함으로써 교학적으로 한단계 깊게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華嚴化의 단서를 열게 되었으며, 또한 천대의 실천적인 색채는 현저하게 희박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9) 會昌 2년(842) 唐의 武宗이 단행한, 이른바 ‘會昌의 破佛’은 중국불교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철저한 불교 탄압이었다. 그 결과 初唐부터 中唐에 걸쳐서 번성하였던 여러 종파는 일시에 침체의 늪에 빠졌다. 9세기말인 唐末부터 五代에 걸쳐서의 亂기에 천대산에서는 기본적인 宗典을 잃어버렸던 모양으로 10세기가 되어 이러한 상태를 개탄한 螺溪義寂은 천대산 지역을 영유하여 번영하였던 吳越王 錢弘俶의 후원을 받아 멀리 고려에까지 불전을 구하였다. 고려 光宗은 이 요청에 응하여 諦觀으로 하여금 불전을 보내 주었다. 諦觀은 그 뒤 吳越에 머물러 천대학의 개론서인 『天台四教儀』을 저술하였다. 義寂이나 諦觀 등의 노력에 의하여 천대종 부흥의 기운의 단서가 열리게 되었다. 10세기 말부터 11세기 초에 걸쳐서는 義寂의 제자에 고려 출신의 寶雲義通이 나오고, 의통의 문하에서 四明知禮와 慈雲遵式이 나와 천대교학의 화엄화 경향을 비판하고 智顓教學에의 복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천대종은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로 천태종의 교의를 보다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山家派의 從諫에게서 천태교관을 전수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하여 일찍이 高橋亨은 不可解한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¹⁰⁾ 그 이상의 추구는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의천의 천태사상을 이해하려고 함에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三

의천이 宋에 머무는 동안에 직접 만났거나, 서신으로 교류했던 宋의 승려 50여명 가운데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하여지고 있는 사람은 41명이다. 이 41명을 소속 종파별로 분류하여 보면, 華嚴宗 13인, 天台宗 8인, 戒律宗 3인, 法相宗 2인, 禪宗 5인, 西天梵學 2인, 所屬宗派 未詳 8인이다. 이 가운데 화엄종의 승려가 13인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의천의 불교 중심이 화엄종이었다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천태종 승려가 많은 것도 의천의 불교에서 제2의 종파가 천태종이었던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¹¹⁾ 의천과 교류했던 宋의 천태종 승려 8인을 山家派 山外派 등의 학파별로 분류하여 보면, 山家派에 속하는 승려는 從諫 元淨 中立 法隣 등 4인이며, 山外派에 속하는 승려는 仁岳 可久 등 2인이고, 기타 나머지 惟勤 辯眞 등 2인은 法系가 불명이다.¹²⁾ 이로써 山家派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從諫이 의천에게 天台教觀을 전수해 준 正統의 祖師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은 山家派가 正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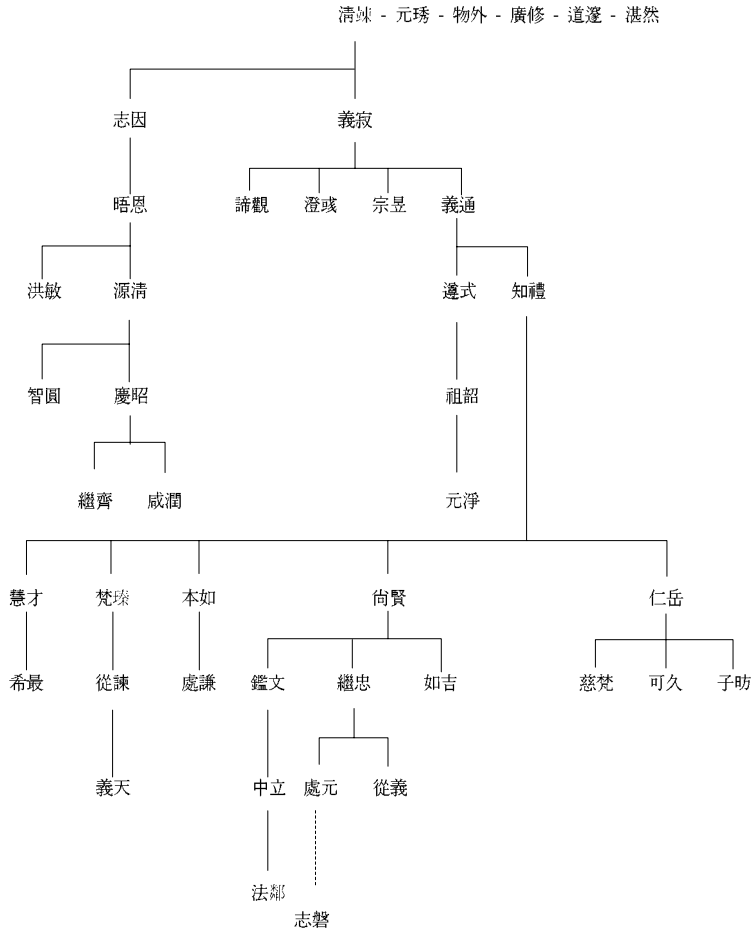
10) 高橋亨, 「大覺國師義天の高麗佛教に對する經綸に就いて」(『朝鮮學報』 10, 1956, p. 133).

11) 「僊鳳寺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에 의하면, “국사는 세상에 뛰어난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여러 종의 학문에 사무쳐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그 스스로 인정하여 자신의 임무로 삼은 것은 賢首와 天台 양종에 있었다.”라고 한 바와 같이 의천의 불교학의 폭은 대단히 넓어 여러 종파의 교학을 섭렵하였지만, 중심으로 삼은 것은 화엄과 천태였다.

12) 拙稿, 「義天과 宋의 天台宗」(『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1992, pp. 841~62).

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宋의 불교계에서 山家派 승려들의 학적 활동은 知禮 이외에는 山外派 승려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화엄종의 입장에서 새로이 천태교학을 받아들여 화엄 천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던 의천으로서는

圖表 1. 宋代의 天台宗系譜



山家派 승려들과의 교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결과 山外派 승려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들이 바로 仁岳과 可久 등 2인이었다. 이들 2인은 師弟關係에 있던 인물들로서 後山外派, 또는 雜傳派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의천과 교류한 인물 가운데 前山外派의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의천이 宋에 가기 전에 모두 入寂한 뒤였기 때문이라고 보며, 仁岳과 可久 등 2인도 모두 의천과 교류하게 될 때는 그들의 말년경이었다.

한편 의천은 宋에서 3,000여 권의 많은 佛典을 수집하여 왔는데, 특히 宋의 天台宗僧의 저술을 열심히 수집하여 왔음이 의천이 귀국한 뒤 편찬한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불전목록에서 宋代 天台宗僧의 저술만을 뽑아 山家派와 山外派로 분류하여 보면, 山家派의 저술이 모두 11人 33部 76卷, 山外派의 저술이 모두 7人 63部 189卷이 되어 山外派의 저술 分量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山外派의 저술 가운데는 知禮를 비롯한 山家派의 教說을 직접 논란하였던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의천의 山外派의 주장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山外派 승려 가운데는 특히 前山外派의 孤山智圓(976~1022)의 저술이 31部 129卷, 後山外派의 淨覺仁岳의 저술이 23部 48卷에 달하여 이 두 사람의 저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大覺國師文集』에서도 智圓에 관한 언급이나 그의 책의 인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仁岳의 서신이 실려 있음을 보아 의천의 천태사상에는 智圓과 仁岳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13) 고려 仁宗 15년(1137)에 수립된 「南嵩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에는 “(의천이) 求法하고 돌아와서 처음에 왕에게 올린 표문에서 ‘만리의 과도를 건너 百城의 善友의 만나서 두루 眞教를 尋問하였음은 오로지 성상의 위엄에 힘입은 것이온바, 天台 賢首의 종학과 泚水 孤山の 교지에 이르기까지 외람되게 향로와 불자를 전해받았으니, 이는 箕裘를 잘못 承事한 것이 아닌가 저으기 걱정됩니다.’ 라고 하였다.”라 하여 의천이 宋에서 천태의 孤山智圓과 화엄의 泚水淨源으로부터 불법의 종지를 받아 왔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大覺國師文集』 권8에 실린 「至本國境上乞罪表」, 및 『外集』 권13에 실린 「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 등에는 이와 다른 내용

한편 고려초 光宗 12년(961)에 諦觀은 天台典籍을 吳越에 전하여 중국 천태종을 부흥케 하여 준 것으로 유명하거나, 그가 지은 『天台四教儀』는 천태종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그에 대한 註疏가 73종 130여종이나 나왔을 정도로 중국·한국·일본의 3국의 천태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 『天台四教儀』를 최초로 校勘하여 板刻한 인물이 바로 山外派의 智圓이었다. 智圓이 많은 저술을 남기면서 山家派에 대항하는 謀將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天台四教儀』가 일찍부터 특히 山外派 승려들에게 주목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天台四教儀』의 註釋書로서 가장 앞선 연대의 것은 從義(1042~1091)의 『天台四教儀集解』 3卷인데, 仁岳의 科文을 臺本으로 하고 있다. 仁岳과 從義는 모두 後山外派에 소속된 인물로서 『天台四教儀』 연구의 효시가 되고 있다.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諦觀의 『天台四教儀』와 함께 仁岳의 『科』 1卷, 從義의 『科』 1卷, 『集解』 3卷, 從陳의 『講義』 3권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또한 의천 자신도 직접 그것을 註釋하여 宣宗 6년(1089) 2월 海印寺에서 중간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의천이 宋 山外派 승려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諦觀의 『天台四教儀』를 대단히 중시하였으며, 또한 그를 한국 천태종의 祖師로서 높이 숭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

을 전하여 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전략) 慈恩 賢首의 종학과 台嶺 南山의 교지에 이르기까지 외람되게 향로와 불자를 전해 받았으니, (후략)”라 하여 法相宗 華嚴宗 天台宗 戒律宗의 4종의 종지를 받아 온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문집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측컨대 仁宗 9년(1131) 林存이 왕명을 받아 찬술한 원래의 비문은 문집의 내용과 같았을 것이나, 仁宗 15년(1137) 비석을 세울 때에 천태종의 승려들이 의천의 불교 가운데서 특히 천태종의 입장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法相과 戒律을 제외하고 화엄과 천태만을 받아 온 것으로 내용을 조작하여 새긴 것으로 보인다.

- 14) 의천이 諦觀을 한국 천태종의 조사로서 높이 추앙하고 있었음은 그의 문집과 「雁鳳寺天台始祖大覺國師碑」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천태산을 찾아 智者大師塔 앞에서 올린 발원문에서는,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저희 나라에도 옛적에 諦觀법사가 있어서 대사의 教觀을 다른 나라에까지 유통시키었으나, 그 전하여 익히는 계통이 끊어져서 지금은 없으니, 불초한 이 의천이 분발하여 몸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스승을 찾고 도를 물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아 諦觀이 전한 교법이 끊어진 것을 애석해 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다시 잇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圖表 2,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된 宋代 天台宗僧의 著述目錄(人名別)

1. 山家派

(1) 四明知禮

法華十不二門指要鈔	二卷
同 科	一卷
法華義疏記	二卷
同 科	一卷
金光明經文句科	二卷
文句記	六卷
玄義科	一卷
玄義拾遺記	三卷
釋難扶宗記	一卷
十義書	五卷
觀無量壽經妙宗鈔	三卷
科	一卷
請觀音經釋消伏三用	一卷
別理隨緣二十門	一卷

(2) 慈雲遵式

華嚴經懺要鈔	四卷
金光明經懺法補助儀	一卷
觀無量壽經往生淨土決疑行願二法門	一卷
小阿彌陀經往生淨土懺願儀	一卷
請觀音經懺儀	一卷

(3) 南屏梵臻

十不二門摠別指歸	一卷
----------	----

(4) 廣智尙賢

答三千書	一卷
------	----

經體章	一卷
(5) 慈辯從諫	
議方便品題	一卷
(6) 辯才元淨	
圓理事說	一卷
科	一卷
(7) 廣慈慧才	
圓教解行集要	一卷
(8) 扶宗繼忠	
金光明經十義書科	一卷
解謗書	三卷
天台類集口義	十三卷
(9) 處謙	
法華十不二門顯妙	一卷
(10) 如吉	
天台文類	十卷
(11) 澄彧	
觀無量壽經注十疑論	一卷
般若心經顯宗記	二卷
* 合計 11人 33部 76卷	

2. 山外派

(1) 靈光洪敏	
資中疏眞證鈔	六卷
(2) 孤山智圓	
大涅槃經疏科	二十卷
三德指歸	二十卷
玄義科	二卷

發源機要	二卷
金剛鉀科	一卷
顯性錄	四卷
無量義經疏	二卷
首楞嚴經顯贊鈔記	十四卷
疏	十卷
谷響鈔	五卷
科	六卷
維摩經垂裕記	十卷
科	六卷
般若心經疏	一卷
論謀鈔	一卷
科	一卷
普入不思議法門經疏	一卷
文殊說般若經疏	二卷
觀無量壽經刊正記	二卷
科	一卷
小阿彌陀經疏	一卷
賈資鈔	一卷
科	一卷
四十二章經注	一卷
正義	一卷
盂蘭盆經摭花鈔	二卷
科	一卷
禮讚文	一卷
佛遺教經疏	二卷
科	一卷

(3) 永嘉繼齊

指濫	一卷
(4) 宗昱	
注法華本迹不二門	一卷
(5) 淨覺仁岳(以下 後山外派)	
大涅槃經禮讚文	一卷
十不二門文心解	一卷
科	一卷
論三千書	一卷
首楞嚴經集解	十卷
文句	二卷
熏聞記	五卷
說題	一卷
說題科	一卷
禮誦儀	一卷
金剛般若經疏	二卷
經輪鈔	三卷
科	一卷
觀無量壽經十諫書	一卷
小阿彌陀經新疏	二卷
新疏指歸	二卷
科	一卷
佛遺教經助宣記	二卷
四分律南山祖師禮讚文	一卷
施食須知	一卷
天台四教儀科	一卷
義學雜編	六卷
復右旋行道儀	一卷
(6) 慈梵	

法華經讀十不二門新注	一卷
首楞嚴經說題通要	二卷
(7) 新智從義	
天台四教儀科	一卷
集解	三卷
* 合計 7人 63部 189卷	

그런데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은 각 권의 卷首에 <海東有本見行錄>이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단순한 文獻上的 書目을 集錄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현재 蒐集하여 所藏하고 있는 章疏의 總目으로써 刊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점과, 그리고 그가 수집한 것 가운데서도 그의 불교 기준에 의하여 다시 취사 선택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宋의 천태종의 승려 가운데 山外派의 著述을 다수 수집하여 章疏目錄에 수록하고 있었던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화엄종의 의천이 천태종을 새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화엄교학과의 대결을 목표로 하여 『大乘起信論』의 唯心論이나 華嚴의 性起說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순수한 천태교학으로서 實相論이나 性具說을 지키려고 하던 山家派의 正統 天台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그의 불교 입장과 합치될 수도 없었던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천은 천태종의 불교 내용에 있어서는 山家派보다도 山外派의 敎學에 더 공감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宋의 불교계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고, 수많은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宋의 불교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의천으로서도 正統 天台學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던 山家派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표면적으로는 그 山家派 천태학의 전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천의 천태종에 있어서 표방과 내용의 차이, 이념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오늘날 山家派 山外派 사이에 論難된 저술들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주로 正統派로 자처하던 山家派의 知禮의 『十義書』와 『觀心二百問』

등 일부만이 전해짐으로써 그 論難의 實相은 그 半面만을 아는데 그치게 되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의천이 수집하여 간행한 많은 분량의 宋代 천태학의 저술, 특히 山外派의 저술이 모두 逸失되어 전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山家派와 山外派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송대 천태학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천태학에서의 의천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四

渡宋에 앞서부터 天台宗 개창의 의지를 갖고 있던 義天은 宋에서 먼저 화엄종의 淨源으로부터 華嚴教觀을 전수받는 가운데 華嚴과 天台의 調和可能性을 확인하고, 곧이어 天台宗의 從諫을 찾아 天台教觀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天台山을 찾아 智者大師塔 앞에서 천태종의 개창을 誓願하고 귀국하였다. 이로써 천태종 창립의 일차적 준비를 일단 마치게 된 의천은 귀국하자마자 佛敎典籍을 정리 간행하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천태종을 개창하는 작업에 곧 착수하였다. 천태종의 개창 작업은 구체적으로 寺刹의 창건과 僧侶의 모집을 통한 敎團組織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의 개창은 화엄종의 불교계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대신에 법상종과 선종에는 타격을 줌으로써 중앙의 교단체제에서 종파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교계의 개편을 초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교계의 반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근본사찰인 國淸寺와, 그리고 개경에 소재한 또다른 천태종 사찰인 天壽寺의 창건과정에서 불교계의 반발과 왕실과 仁州李氏를 비롯한 門閥貴族 등의 정치세력 간의 대립 갈등의 양상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적지않은 파란곡절을 겪게 되었다.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는 과정에서 제일의 후원자가 된 사람은 생모인 仁睿太后와 형인 鷄林公 熙(뒷날의 肅宗) 등 2인이었는데, 개경에 천태종의 근본도량으로 창립된 國淸寺와 天壽寺는 바로 이들의 願刹이었다. 그 가운데 국청사는 인예대후가 자신의 願刹로서 宣宗 6년(1089) 10월에 착공하였으나,

5개월 만인 다음해 3월 新興庵이 벼락으로 소실된 사건이 발생하자 順宗의 원찰인 弘圓寺와 함께 공사가 중지되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은 공사 중지의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이유는 천태종 개창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외척 仁州李氏세력과, 그리고 인주인씨세력과 연결되어 있던 法相宗 교단 측으로부터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예태후는 천태종 개창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선종 9년(1090) 6월 白州의 見佛寺에서 1만일을 기약하는 天台宗禮懺法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말년까지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 자신이 그해 9월 서경에서 세상을 떠남으로써 천태종 개창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宣宗이 11년(1094) 5월에 세상을 떠나고 인주이씨 출신인 李資義가 집권하게 되자, 의천도 그해 2월 興王寺의 주지직마저 내놓고 弘圓寺 주지로 옮기었다가 5월에는 마침내 海印寺로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해 7월 李資義 일파에 의해서 핍박받던 鷄林公熙가 구테타를 일으켜 李資義 세력을 제거하고, 이어 10월 肅宗으로 즉위하게 됨으로써 의천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興王寺의 주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국청사의 공사를 재개하여 마침내 肅宗 2년(1097) 2월 준공을 보게 됨으로써 비로소 한국에서의 천태종의 개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天壽寺는 肅宗의 원찰로서 창건된 것인데, 숙종대에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숙종이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睿宗代에 공사가 계속되었으나,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되는 등의 적지않은 파란곡절을 겪은 끝에 睿宗 11년(1116)에 가서야 비로소 완공될 수 있었다. 이로써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의 개창은 전체 불교교단의 개편과 종파 사이의 균형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불교계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도 맞물림으로써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천은 國淸寺가 준공되자, 興王寺의 주지직을 계속 보유한 체로 국청사의 주지를 兼職하고 천태교단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의천은 천태종 교단을 조직함에 있어서 자신이 원래 속하였던 화엄종의 승려는 단 한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고, 오로지 禪宗 승려만을 포섭하여 새로 구성하였다.¹⁵⁾

仁宗 15년(1137)에 수립된 「僊鳳寺天台始祖大覺國師碑」의 陰記에 의하면,

“吾祖 대각국사가 왕궁에서 탄생하여 (천태산의) 佛巖에서 법등을 전해받고 본국에 돌아와 천태진종을首唱하니, 덕은 고독하지 않아서 이웃이 있었고, 구슬은 부르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이르러 왔다. 그러므로 居頓寺, 神□寺, 靈巖寺, 高達寺, 智谷寺 등의 五法眷의 名公 學徒들이 명령에 따라 함께 모였으며, 그밖에 대각국사의 문하로 직접 투신한 諸山의 名公 學徒 300여 명과 앞의 五門學徒와 더불어 무려 1,000 명이었다.”

라 한 것을 보아 처음 교단조직 당시의 천태종의 인원수는 1,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모두 선종의 승려였음이 주목되며,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 한 그룹은 居頓寺, 神□寺, 靈巖寺, 高達寺, 智谷寺 등 5개 사찰의 승려 700여 명으로서 이들은 모두 고려초 光宗代 吳越로부터 받아들여진 法眼宗 계통의 禪僧들이었음이 주목된다. 이로 보아 고려초의 法眼宗은 光宗이 세상을 떠난 뒤 改革政治의 중단으로 인하여 독립된 종파로 창립되지는 못하고 말았으나, 그의 法孫들이 지방의 사찰에서 이어져오다가 의천의 천태종 개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움으로써 그 창립의 인적기반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제2의 그룹은 의천이 직접 자신의 문하로 포섭한 禪僧 300여명인데, 德麟·翼宗·景蘭·連妙 등 4인이 각기 자신의 문도들을 거느리고 천태종 교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의천이 이와 같이 선종

15) 의천에 관한 비석은 靈通寺와 僊鳳寺 두 곳에 세워졌는데, 영통사의 것은 仁宗 3년 의천의 화엄종 계통의 제자들이 수립한 것으로 그 음기에 열거된 문도들은 모두 화엄종 승려들뿐이다. 그리고 선봉사의 것은 인종 15년 의천의 천태종 계통의 제자들이 수립한 것으로 그 음기에 열거된 문도들은 모두 천태종의 승려들뿐이다. 따라서 두 비석의 음기에 기록된 문도들의 명단은 한 사람도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두 종단의 승려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도들의 명단을 나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영통사의 비석에서는 僧統 首座 三重大師 重大師 大師 大德 등 法階 순으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있는데 비하여, 선봉사의 것에서는 德麟 翼宗 景蘭 連妙 등 師僧 별로 분류하여 法系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교종보다 선종에서 法系를 중시하였던 특성 때문이었다고 본다.